

광주에 호남 최대 쿠팡물류센터 문 열었다

평동3산단지 준공식...2000억 투자·2000명 직고용 전망

광주시 투자유치 결실...지역경제 활성화·물류편의 기대

호남권 최대 규모인 광주 '쿠팡 첨단물류센터'가 문을 열었다. 쿠팡이 2000억원을 투자하고, 지역민 2000여명을 직고용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은 14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1산단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대준 쿠팡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식을 했다.

광주첨단물류센터는 축구장 22개 규모인 연면적 16만5000여㎡(5만평)에 이르며, 쿠팡의 호남권 물류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쿠팡은 특히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의 가치 실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직고용 예상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

첨단물류센터는 전국을 포함한 남부권의 로켓배송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무인운반로봇(AGV),

소팅 봇(sorting bot) 등 최첨단 자동화 물류 설비를 도입해 근로환경의 질을 대폭 개선했다.

또 소상공인의 상품을 광주첨단물류센터에 대량 입고할 수 있도록 해 전국단위 판매 확보와 물류비용 절감 등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쿠팡은 광주첨단물류센터 인근 평동1산단 내에 신선식품(로켓프레시) 전용 등 물류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650명이다.

2020년 쿠팡과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낸 광주시는 이전 및 신·중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규모에 따라 분양가의 최대 30% 이내 입지보조금과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16% 이내 설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특히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총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 조건을 대폭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왼쪽에서 네번째) 광주시장이 14일 광산구 평동3차 산업단지에서 열린 '쿠팡(주)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박대준 쿠팡 대표,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있다.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준 쿠팡에 감사하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인재 양성 등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광주 시민 우선 고용으로 광주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면서 "특히 호남권 중소기업인들의 판로 확대와 함께 대만 등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3조원 이상을 투입해 광주시를 포함

한 전국 9개 지역에 물류 시설을 짓고 1만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전체 직고용 인력은 모두 8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이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근무자 비중은 81%로 높아진다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경제 견인, 동부권 발전 위해 노력"

순천 동부청사서 실·국장 정책회의 투자유치·SOC 확대 등 최선 당부

전남도가 석유화학·제철·이차전지 기업들이 몰려있는 동부권을 기업하기 좋게 만드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순천 동부청사에서 열린 첫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지역내총생산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전남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부권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와 SOC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전남도가 동부청사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개최한 것은 개청 1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국 중 소 도시 중 경쟁력을 갖춘 여수·순천·광양 등의 동부권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이 전남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동부권, 특히 순천·여수·광양은 중소도시로는 가장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전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며 "전남 뿐 아니라 국내 미래 도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와 관련해서도 "국가적으로 진작해야 할 전라선 철도가 아직까지 안됐다"는 것은 호남권이 소외됐다는 것"이라며 "SOC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빨리 통과되도록 하고 사업비도 빨리 확보되도록 온 힘을 쏟자"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섬 박람회 사업비도 여수의 지원 요청에 따라 늘려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회의의 뒤 마린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광주 군 공항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의 '연말 데드라인'론과 관련, "광주 시장 말대로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 결정을 결론내겠다고 하면 광주시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가 나서서 무안 군민들에게 군 공항이 옮겨오더라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설득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같은 노력 없이 (연말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못하겠다고 하는 건 책임회피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인식과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특히 내년에도 정부의 긴축재정이 계속 이어져 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업비를 구조조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주관 '왕중왕전' 본선 진출

광주시는 14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복지 정책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최종 왕중왕을 선발한다.

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역자치단체 정책 중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우수 사례로 지정돼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로 인한 기존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민

·관·정·학 협치를 통해 사업을 설계한 점 등을 인정 받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 기관의 233개 혁신정책을 심사해 15개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본선에서는 경남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차단 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국립농업과학원의 노동력 부족, 로봇이 대체한다 등이 경쟁한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첨단재생의료 실증 사업자 공모

31일까지 기업·기관·병원 모집

광주시는 14일 "첨단재생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생체 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동구 대학병원 지역, 서구 병원 밀집 지역,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약 90만평을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최종 특구로 지정되면 2026년부터 4년간 특례를 적용해 실증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주관은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하며 해외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 실증해 환자 치료권을 확대한다.

또 광주시 주력 산업인 생체의료산업과 접목해 첨단재생의료 실증 연구 개발(R&D) 생태계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세포치료와 조직공학 치료, 융복합 치료, 엑소좀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증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증센터를 조성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다문화 출산·복지 정책 주력

산모도우미·산후 서비스 등 제공

전남도가 다문화 출산·복지 정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다문화 출생 비율 등을 고려하면 다문화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높은 다문화 출생비율을 들어 4주간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비롯해 산모의 영양·건강관리, 신생아 목욕·예방접종 등 산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국 생활방식과 문화 등의 차이로 출산과 산후조리에서 내국인보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지원 정책들이다.

전남도는 또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수요를 감당

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도우미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목표와 순천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기준 전남의 다문화 출생아 수는 538명으로, 지역 총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출생아 비율이 6.8%에 이른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다문화 가구 수도 1만 5666세대(전국의 3.9%·8위), 가구원 수 5만 1131명(전국의 4.4%·7위) 등을 차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현식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 형 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 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